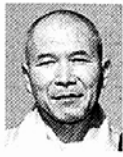


강릉 호국송화사 위문
정각 군불교 진흥회 회장은 19일 강릉 비행장 호국송화사를 방문해 염주와 단주 및 불서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군장병들을 격려했다.



국난극복 방생법회
지명 법주사 주지는 28일 법주사에서 민족회합과 국난극복 및 통일호국청동미특대 불개금불사의 원안성취를 기원하는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청소년교육문화원장에
정각 부산 미륵사 주지(부산시민운동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16일 재단법인 청소년교육문화원 원장에 선임됐다.



조사전 신축상량법회
원행 두타산 상화사 주지는 26일 자장율사, 범일국사, 탄허대종사 등 역대조사들의 영정을 봉안한 조사전 신축상량법회를 봉행했다.



실직자 심성수련회
법륜 한국JTS 이사장 스님은 22일부터 26일까지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실직자 심성수련, 나눔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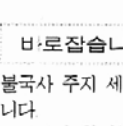
광주시암연 새회장
성호 광주 관음사 주지는 11일 무각사에서 열린 광주 불교사암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13대 연합회장으로 선출됐다.



독거노인 돕기 선서화전
묘각 순천 대각암 암주는 12월 5~11일 정각스님과 함께 창원 신세계백화점 아트홀에서 '독거노인 돕기' 선서화전을 갖는다.



'동아시아 불교문화' 학술회
임기중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원 소장은 24일 동국대 다량관에서 '동아시아 불교문화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바로잡습니다
본지 295호 1면 '음담스님 원적' 기사중 불국사 주지 세민 스님을 해인사 주지로 고칩니다.

또 1면 청년불자층 '흔들린다' 기사중 '한국대학생 불자연합회...'를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로, '171개 지회였던 것이 101개 지회로 감소했다'를 '현재 173개 지회가 등록돼 있다'로, '서울지역 10여개 대학만이 월 1회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를 '34개 이상의 지회에서 월 1회 이상 봉행하고 있다'로 바로잡습니다.

“여성불자 사회참여 유도”

불교여성개발원 초대 원장 이인자 교수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중책을 맡게 돼 우선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2년간 맡았던 창립준비위원장의 경험을 토대로 여성 불교 연구와 교육 사업에 중점적으로 치중할 계획입니다.”
27일 창립한 불교여성개발원의 초대 원장 이인자 교수(경기대)는 취임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현재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부회장이기도 한 이 원장은 여성불자들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불교아카데미' 개설과 가정 상담 및 수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 하겠다고 계획을 털어놨다.

이 해아할 가장 큰 역할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이 불교여성개발원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99년 6월 창립 준비에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해 봉은사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가하면서 부터다. 이날 회의에서 이 원장은 여성불자들의 체계적인 교리교육, 여성자도자 양성 필요 등 여성 불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조치가 없음을 안타까워 했다. 그래서 창립 준비위원장을 맡아 2년동안 기구조직과 사업계획 연구 등을 통해 준비 작업을 착실히 해왔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극진한 지도에 감화를 받아 불자가 됐다는 이 원장은 젊은 여성들이 마음놓고 법회나 사찰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신생활동 시간동안 아

“여성·소외계층 권익향상 노력”

불교여성회 초대회장 성법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 여성의 자아실현, 남녀평등의 실현, 소외계층 문제의 극복을 위해 출·재가가 함께 하는 불교여성운동을 펼쳐겠습니다.”
20일 불교인권위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불교인권위 여성분과위원회'에서 독립, 새롭게 구성된 불교여성회의의 초대회장에 선임된 성법 스님(전 청량사 주지)은 집체된 불교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10년전 불교인권위 창립과 함께 인권여성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성법 스님은 불교계에 YWCA와 같은 영향력 있는 여성단체가 없다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불교인권위 진관스님의 권유로 불교여성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조만간 서울 부산 김해 광주 등에 지회를 구성하겠다는 성법스님은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는 일한 여성단체를 꾸려나 가겠다고 말했다. 성법 스님은 앞으로 일반근위안부, 기지촌 및 직장내 성폭력, 가정 폭력, 농어촌·도시빈민, 여성근로자 탁아 등 여성·소외계층 문제를 비롯해 남성과 용평등과 같은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65년 해은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성법스님은 서울 청량사에서 불우청소년들을 키워오면서 여성 및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몸으로 느껴왔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opia.com)

“연기 가르침 바탕 친환경 교육”

실상사 '작은학교' 대표 이재재 교사



“실상사 작은학교는 생명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터전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불교계 첫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의 대표교사 이재재(42·법명 향산) 선생은 “연기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연친화적·자립적 정신을 배우는 생명살림학교, 학생 개인의 특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며 성숙한 인격 갖출의 터전이 되는 학교를 지향하겠다”고 학교 운영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 등 6명의 교사들은 이미 1년전부터 준비모임을 꾸려왔으며 6개월과정의 공동체 연수기간 동안 좌선과 명상, 공동체이론과 녹색사상 공부, 실상사 농장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교사들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비인가 과정의 대안 중학교인 '작은학교' 김재경 기자

는 중학교 3년과정의 일반교과와 이외에 체험교과와 주제교과 과정을 둔 것이 특징이란 게 이 대표의 설명. 체험교과는 실상사 농장에서 농사일을 해보는 자치살림, 음식 만들기 등 가능익하기, 연극 풍물 태극기 전문 등 특기 살리기, 봉사활동 공동체체험 역사문화기행 지리산중풍 등 세상보기 과정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런 다양한 교과과정도 재정 지원 없이는 실현이 어렵기며, 학교설립운영기금(3억원 예정) 확보에 불자들의 아첨이 관심을 당부했다. 20명 정원인 '작은학교'의 1차 서류전형은 12월5일까지. (063)636-3369 (295호 2면 참조) 김재경 기자

“건강한 식생활 기대”



“일반인들에게 사찰음식을 널리 보급시켜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인사동에 사찰음식전문점 '다경(多慶)'을 낸 이어영씨(사찰음식연구원소장), 30여년동안 사찰음식을 연구해온 이 소장은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비만과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사찰음식의 대중화에 발 벗고 나섰다. '다경'을 연지 두 달이 채 안됐지만 외국인들도 입소문을 듣고 많이 찾아온다고 자랑을 늘어 놓는 이 소장은 신선한 야채 등 좋은 요리 재료를 고르기 위해 남보다 일찍 일어나 매일 새벽 4시 경동시장으로 향한다. “음식집 문을 열기 전에 항상 먼저 부처님께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음식점에서 남는 수익금의 일부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사찰음식을 보시할 계획입니다.” 다경에서 이 소장은 주방에서 손수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 버섯구이, 도토리묵 샐러드, 호박달걀 튀김, 버섯탕수, 연꽃밥, 연자죽 등 30여가지의 다양한 무공해 요리들을 매일 바뀌며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찰요리 강좌'도 열고 있으며, 12월말에는 사찰요리책도 출간할 예정이다. (02)725-5754 김주필 기자



부산종교인평화회의 통일세미나

부산종교인평화회의(공동대표 정각)는 17일 부산YMCA 대강당에서 '남북정상회담과 종교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통일세미나를 개최했다. 상임대표 정영문 목사, 감사 월강스님 등 2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념과 지역 종교를 넘어 화합하자는 내용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정휴스님 전집 10권 출판기념회

조계종 종회의원 정휴 스님의 '전집 10권' 출간 기념 출판기념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 총무부장 원택 스님 등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한국일보 송연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정휴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집 출간이 불교 문화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소자 100여명 대상 독경대회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이사장 해철)는 17일 성동구치소 강당에서 재소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독경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1명의 재소자가 결선에서 평소 갖고 있던 불심을 펼쳐보였다.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는 독경대회와 함께 불교의식집과 생활필수품을 성동구치소측에 전달했다.



부천 경찰서 순직경찰 위령제

부천경찰서 경승실(실장 성인)은 18일 경승법당에서 제10주기 순직경찰 위령제를 봉행했다. 산천 불국사 주지 보각스님 등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위령제에서 경승실장 성인 스님은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경찰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이 부처님의 품 속에서 편안히 쉬길 발원하자"고 말했다.

제 30차 전국어린이 지도자 연수회

깨어있는 지도자 슬기로운 어린이

모시는 글

반갑습니다. 부처님 나라를 위해 협찬 정진을 하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 1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순수하게 어린이포교에만 앞장서온 본회가 제30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30번째라는 큰 의미 속에서 지나온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깨어있는 지도자 슬기로운 어린이'라는 슬로건 아래 올바른 불자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과 신심교회를 위하여 친목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어린이포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모여 새해 새날의 아침을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4년 11월 좋은 날

- 총재: 정관 부총재: 혜승 철오
회장: 덕진 상임부회장: 정여
부회장: 운성 원혜 해관 영조 심산 성형 인성
감사: 지광 박장식

주최: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주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연계

불기2544년 12월 30일(토) 오후 5시
~ 익년 1월 1일(월) 오전 11시(2박3일)
속리산 유스타운(범주사)

장소

- 참가대상: 어린이 지도법사 및 교사, 어린이포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동참금: 1인 5만 5천원 (미리접수 5만원)
군종병/도서벽지 지도자 3만원 (2박 6식, 연수회자료집, 2만원상당 도서, 기념품 지급)
신청방법: 실명인 관계로 송금 후 전화 / 당일 접수도 가능
신청기간: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까지
보내실곳: 우체국 601310-0037877 예금주 - 대불어
접수담당: 장수정
준비물: 간편한 복장, 장갑, 세면도구, 필기구
접수문의: 본회 사무국

각 지역 문의처 (차량 및 교통편 문의)

- 서울·경기: 02-433-1506, 7 / 유지선 사무국장(선재마을)
부 산: 051-852-5414 / 부산지구 사무국
대구·경북: 016-505-3143 / 김형중 사무국장
광 주: 011-719-5550 / 정수보 사무국장
대전·충남: 016-446-5955 / 김성형 사무국장
경 남: 055-242-0108 / 천명숙 사무국장
제 주: 016-691-4728 / 김봉현 사무국장

Table with 2 columns: 연수내용 (Training Content) and 강사 (Instructor). Rows include topics like '초등교육의 특성과 아동지도의 방향', '우리법회 짱! 짱! 짱!', '어린이포교를 위한 발원법회', etc.

☎ 051)808-4569, 4570 FAX 051)808-4571
홈페이지: www.sesag.or.kr
e-mail: webmaster@sesag.or.kr